

# 김득신의 『終南叢志』에 나타난 詩論

## -비평관을 중심으로-

신 범 식(충북대 강사)

### 1. 들어가는 말

백곡柏谷 김득신金得臣<sup>1)</sup>은 조선대 문인文人이다. 소위 ‘목릉성세穆陵盛世’라 일컬어지며 삼당과 시인三唐派詩人과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를 배출했던 조선 전기 문예의 전성기를 거치면서 시단에 이렇다 할 인물이 없던 17세기 조선 중기에, 그는 우뚝 솟은 봉우리를 차지한 문인이었다. 김득신은 시인인 동시에 비평가다. 그는 평생 왕성한 작품 활동으로 1,500여 수의 시<sup>2)</sup>를 남겼으며, 시화집詩話集 『중남총지終南叢志』를 저술하여 자득自得의 감식안鑑識眼으로 비평세계를 전개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시詩에 대한 인식을 인위적이거나 도식적인 형식미보다는 내용의 진실성과 사실성에 기준을 둔 천기론적天機論的 시의식詩意識<sup>3)</sup>을 제시하였는가 하면, 시詩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묘오妙悟의 단계를 거쳐야 감식안 이 생긴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그리고 자신도 직접 참된 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한 ‘고음苦吟’과 ‘다독多讀’으로 유명한 인물이기도하다.<sup>4)</sup> 또한 정두경鄭斗卿(1597-1673), 임유후任有後(1601-1673), 홍석기洪錫箕(1606-1680), 김석주金錫胄(1634-1684), 박장원朴長遠(1612-1671), 홍만중洪萬宗(1643-1725), 남궁옥南宮鈺(1620-1699), 이일상李一相(1612-1666), 김진표金震標(1614-1671), 이서우李瑞雨(1633-?) 등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당대의 시단을 주도하였다. 이렇게 그는 당대의 문예 담당자로서 그 역할을 다했던 문인이었다. 이런 점에 주목한 일부 연구자들은 나름대로의 연구 성과<sup>5)</sup>를 이루어 놓았으나 더 천착해야 될 여지가 남겨져 있는

1) 金得臣(1604~1684) : 선조37~숙종10 간의 文臣. 자는 子公. 호는 柏谷 또는 龜石山人. 본관은 (舊) 安東이다. 59세에 증광시 병과에 급제하였으며 嘉善階에 올라 安豐君에 습봉되었다. 詩名이 높았다.

2) 김득신은 평생 왕성한 창작활동으로 많은 작품을 남겼으나 丙子亂 때에 遺失되어 천여 편만이 남았는데, 木川 柏田에 살고 있던 그의 손자 金可遠이 화제를 만나 재차 燒亡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고 남은 잔여분이 현전하는 『柏谷集』이다. 거기에는 詩 1594首(5언고시 15수, 7언고시 29수, 6언시 7수, 5언절구 278수, 7언절구 469수, 5언율시 498수, 7언율시 284수, 5언배율 14수)가 수록된 詩集篇과 文 177여편이 수록된 文集篇, 그리고 墓碣銘·行狀·祭文 등을 모아 엮은 附錄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柏谷集』은 家傳된 필사본을 영인한 것이므로, 간혹 誤字가 나오고 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중복된 곳이 있는가 하면, 錯簡되어 同題의 시가 흩어져 있거나 다른 시와 뒤섞인 경우도 있다.

3) 天機論에 대한 논의는 조선 전기부터 사대부들에 의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는 중인들이 그들의 문학론으로 내세우기에 이른다.

4) 拙稿, 〈백곡 김득신 선생의 일화〉,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5집(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4. 6). 163쪽~172쪽 참조.

5) 김득신의 시화집 「終南叢志」를 텍스트로 한 논문으로는, 鄭大林, 「金得臣의 詩論」, 『李朝後期 漢文學의 再照明』(창비사, 1983).

배다니엘, 「金得臣의 「終南叢志」에 나타난 嚴羽 시론의 수용」, 『중국학논총』 7집(1998)

실정이다.

이러한 김득신의 문학세계에 대한 연구는 한국고전비평사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그의 시화는 17세기 시단의 경향과 시론의 흐름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고는 그 일환으로 김득신의 시론에서 그가 견지했던 비평세계를 『종남총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종남총지』의 형성 배경으로 17세기 문풍과 시화사의 맥락을 살펴보고, 『종남총지』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본 논고의 문제제기에 접근해 가고자 한다.

## II. 『종남총지』의 형성배경

### 1. 17세기 文風문풍과 시화사詩話史

조선조는 임·병 양란의 전대미문의前代未聞 처절한 체험을 겪으면서 제도적 모순과 이념적 경직성에 회의와 반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탈주자주의脫朱子主義와 함께 실학의식이 팽배하였고 사회는 정치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불안정이 노정露呈된 것은 물론, 체제의 권위와 지배질서를 받쳐주었던 정통 한문학마저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건국 초기부터 정통적인 문풍文風으로 자리 잡은 성리性理와 성정도야性情陶冶의 핵심적인 문풍에 대한 반동, 곧 ‘정통에 대한 반동’<sup>6)</sup>이기도 했다.

한편, 인조반정 이후 체제에 불안을 느낀 서인정권은 자구책으로 이이李珣가 제시한 이원론적二元論의 주기설主氣論에 예론禮論을 더하여 사상적 지도 이념으로 무장하고 공신훈척功臣勳戚이 문학의 주도권을 잡아 정통 한문학의 권위를 회복해서 임란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와야 하고자 하는 이른바 복고노선復古路線을 천명했다. 그 결과 한문사가漢文四家를 비롯하여

---

안대회, <김득신의 구안론>, 『조선후기시화사』(소명, 2000) 이 있다.

그의 시문집인 『柏谷集』을 텍스트로 한 논문으로는,

金昌龍, 「柏谷 金得臣의 人間과 文學」上, 『李家源七秩紀念頌壽論叢』(1987).

\_\_\_\_\_, 「柏谷 金得臣의 人間과 文學」下, 『衝擊과 調和』(동방문학비교연구회편, 1987).

\_\_\_\_\_, 「金得臣의 假傳 <歡伯將軍傳> · <淸風先生傳>해제및번역소개」 『漢城語文學』6집(1987).

李美亨, 「柏谷 金得臣의 詩世界 研究」(고려대 석사학위논문, 1991).

이영미, 「柏谷 金得臣의 儷文 研究」, 『語文研究』21집(1991).

申範植, 「柏谷 金得臣 研究」(청주대 석사학위논문, 1996).

李鍾默, 「柏谷 金得臣論」, 『조선후기한시작가론2』(이회, 1998).

李在福, 「백곡 김득신의 시문학 연구」(세종대 박사학위논문, 1999).

車溶柱, 「김득신 연구」 『한국한문학작가연구3』(아세아문화사, 2001).

李鍾默, 「金得臣 한시의 창작방법과 淸新의 미학」, 『한국한시의 전통과 문예미』(태학사, 2002).

그 외 그의 문집에서 충북지역을 노래한 시만을 뽑아 번역 소개한 申範植 외 편역, 『淸風明月을 노래한 金得臣의 詩』(김득신기념사업회, 2002)가 있다.

위의 논문을 검토해 보면 대체로 그 연구 방향은 초기에는 詩論에 치중된 경향이 있었으나 점차로 作品이 분석됨으로써 총체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김득신의 시의식이나 비평관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면이 아직은 부족한 점을 감지할 수 있다.

6) 문학사를 기술하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주장되어온 ‘정통에 대한 반동’이라는 용어는 한국한시문의 정통에 대한 반동, 즉 前思潮라든지 前文藝運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대동을 말한다. 그들은 이를 학술 용어로 선택하고 있는데 가장 적절한 의미일 수도 있겠다.

최립, 차천로, 이안눌, 정두경, 남용익, 김석주 등의 복고적 문풍을 보게 되었다.<sup>7)</sup> 한편으로 조선조 후기는 전기의 주자주의적 문학에 대한 회의와 반성에 이어 탈주자주의적 경향이 나타나면서 문학본질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제기되었다. 인위적이며 도식적인 형식미보다는 내용의 진실성과 사실성을, 추상적이며 이념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이며 현실적인 것을, 객관적이며 관념론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이며 마음의 성실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추구하고자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유몽인柳夢寅(1559~1663)은 “대저 그림과 문장이 어찌 다르겠는가, 한 번 본마음을 잃게 되면 비록 금장수구錦章繡句라도 아는 이는 취하지 않으니 오직 안목이 있는 이라야 가능하다…”<sup>8)</sup> 라고 하여 사실성과 진실성을 강조했고, 이수광李睟光(1563~1628)은 “문장은 자연스러운 것을 귀하게 여긴다…”<sup>9)</sup>라하여 인위적인 기교를 배제했다. 허균許筠(1569~1618)은 성정지정性情之正을 드러내야 한다는 기존의 재도론적載道論的 문학관을 거부하고 인간의 타고난 정情을 바탕으로 개성과 독창성을 중시하는 성정지진性情之眞의 문학관을 주창했으며<sup>10)</sup>, 이민성李民成(1570~1629)은 성정性情의 도덕적 교화教化에서 벗어나 천기天機의 자연스러움을 존중하기 시작하는 사고의 전환을 보여주었다.<sup>11)</sup> 이와 같은 반전통적인反正統的 문풍文風은 이후 김창협·김창흡 형제의 천기설天機說로 발전되어 진시眞詩 운동의 계기는 물론, 이후 박지원朴趾源, 정약용丁若鏞의 조선풍朝鮮風·조선시朝鮮詩 운동의 전기를 마련하기도 한다.<sup>12)</sup>

특히, 이 시기에는 시 비평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그 결과가 다양한 시화집詩話集<sup>13)</sup>의 형태로 나타난 점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허균의 『성수시화惺叟詩話』, 이수광의 『지봉유설芝峯類說』, 신희의 『청창연담淸窓軟談』, 양경우의 『제호시화霽湖詩話』, 차천로의 『오산설림五山說林』 등이 17세기 전기를 대표하는 시화집으로 손꼽힌다. 이와 같이 시에 대한 논의나 비평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데에는 일부 시화집을 엮은 시인들의 시론 및 비평에 대한 관심 그 자체만이 원인이 되었다기보다는 그 어느 시기보다도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던 시에 대한 보편적인 관심이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기의 것을 바탕으로 17세기 후기에 들어오면서 작가와 작품을 품평하는 경향이 최고조에 도달하였는데, 그러한 성향을 보인 시화에 김득신의 『중남총지終南叢志』, 홍만중의 『소화시평小華詩評』, 『시평보유詩評補遺』, 남용익의 『호곡만필壺谷漫筆』, 『교거쇄편郊居瑣編』, 임방의 『수촌만록水村漫錄』, 김만중의 『서포만필西浦漫筆』, 임경의 『현호쇄담玄湖瑣談』 등이 있다.

조선 중기의 시화의 두드러진 특징은 작품의 격조를 작품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 작품의 심미적 특질을 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비평기준의 설정과 그 비평방법은 우리 시화사의 모든 시기에 중시된 것이 아니라 조선 중기라는 특정한 역사시기에 대두한 것이

7) 金甲起, 「朝鮮後期の 漢文學」, 『韓國漢文學史』(반도출판사, 1991), 357쪽~361쪽 참조.

8) 『於野談』 “…夫畫與文章, 何異, 一失本意, 雖錦章繡句, 識者不取, 惟具眼者, 能知之…”

9) 『芝峯類說』 卷八 〈文章部〉 “…余謂文貴自然…”

10) 張源哲, 『朝鮮後期文學思想의 展開와 天機論』(한국정신문화연구소 석사학위논문) 36쪽 참조.

11) 이민성은 金誠一의 문하생으로 거의 무명의 인물이지만, 당시 한문학의 새로운 방향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趙東一, 『한국문학통사』 권3(지식산업사, 1994) 56쪽 참조.

12) 金甲起, 『韓國文學概論』(새문사, 1992), 290쪽 참조.

13) 우리나라에서 시화詩話라는 명칭이 붙은 순수 시화집은 서거정의 『동인시화』가 처음이나 우리나라 시학사에서 최초의 시화집으로 소급할 경우 통상적으로 고려때 이인로의 『파한집』을 꼽는다.

다. 더구나 한두 비평가에 의해 전개된 특징이 아니라 하나의 사조로서 유행한 성향이었던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조선 전기의 시화로써 작품의 격조를 기준으로 작품의 품평에 주력한 시화집은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었고, 허균과 이수광의 시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화란 시의 이야기[詩話]라기 보다는 ‘시의 품평’이라는 적극적인 비평의식이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이들은 작품의 미감美感과악을 중시하여 그에 접근해 가는 심미적 비평의 방향을 선택하게 되었다.<sup>14)</sup> 17세기 중·후기 시화는 대부분 작품의 품격을 파악하는 능력을 강조하였다. 또한 김득신은 “무릇 시는 천기에서 얻어 스스로 조화造化의 공功을 운용한 것이 으뜸이다”<sup>15)</sup>라 하여 시詩를 인위적인 것보다는 자연스러움에 기준을 두는 천기론적天機論的 비평론을 설파하였음을 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종남총지』의 작품 내용을 살펴보겠다.

## 2. 『終南叢志』의 작품내용

『종남총지』는 김득신 저작의 시화집詩話集이다. 『백곡집』에는 그 일부가 실려 있을 뿐, 전문은 조선 중기의 학자인 홍만중이 편찬한 『시화총림詩話叢林』 전 4권 가운데 넷째 권에 남용익南龍翼의 『호곡시화壺谷詩話』, 임방任墜의 『수촌만록水村漫錄』, 임경任璟의 『현호쇄담玄湖瑣談』과 함께 실려 있다. “총지叢志”라는 명칭으로 보아 여러 내용을 모아 놓은 책으로 보이지만, 이 책과 『양파담원陽葩談苑』<sup>16)</sup>에는 시화만 각각 48조條와 51조條가 뽑혀 실려 있다. 따라서 나머지는 일실되고 시화만 남아있는 것인지, 본래부터 시화만 수록한 책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홍만중이 이 책의 “범례”에서 『현호쇄담』, 『수촌만록』과 함께 이 책에는 자신의 시와 그에 대한 평이 수록되어 있어 혐의를 피하기 위해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이것이 내용의 전부가 아닌가 한다.<sup>17)</sup> 『종남총지』은 48조의 시화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은 주로 조선 중기 문인들 가운데 어무적魚無迹(생몰년 미상, 조선중기의 시인)에서부터 김득신 당시 주위 인물인 임방林墜(1640-1724)에 이르기까지 시와 시작詩作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하며 작품에 대한 단평短評도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시에 대한 이해와 작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 내용과 논지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4) 전형대 외, 『韓國古典詩學史』(홍성사, 1981) 315쪽

15) 『終南叢志』 “凡詩得於天機, 自運造化之功者, 爲上…”

16) 『시화총림』에 수록된 『종남총지』의 시화는 그 내용이 그대로 『양파담원陽葩談苑』·『청운잡흥靑韻雜叢』에 실려 있는데 『시화총림』에 실린 것 외의 내용을 담은 사본은 없다.

17) 홍찬유 역주, 『詩話叢林』(통문관) 및 허권수 외 역주 『譯註 詩話叢林』下(까치, 1993), 185쪽. 참조.

條次	內 容	論 旨
1	魚無迹과 李孝則 사이의 일화	사람을 외모로만 선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작품으로 해야 된다
2	容齋 李荇의 접빈사 때 作詩 일화	외모로만 이행을 평가했던 중국 사신과 儻相과 從事官을 漢詩大家들로 구성했던 당시의 時代相
3	羽士 金迥春의 ‘丹陽峽中’ 시 소개	무명의 시인이러도 佳作이 있다
4	湖陰 鄭士龍의 明宗 應製詩 소개	허균이 秀作이라고 평한 湖陰의 題畫詩
5	鄭士龍의 ‘後臺夜坐’ 시에 대해 이수광과 허균의 엇갈린 評	評者는 작가의 用意處를 窮究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6	유생 禹鐸이 지은 시를 盧守愼이 극찬함	시대의 先後와 사람의 貴賤으로 시의 輕重을 따지지 말라
7	정철의 ‘樂民樓’시에 대한 이견	세상에서 絶唱으로 인정받는 시도 절대적은 아니며, 이를 잡아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
8	古玉 鄭碯의 ‘遊山寺’ 시 소개	‘語有神助’하다는 허균의 평
9	蓬萊 楊士彦의 시 소개	‘시어가 맑고 격조가 고상한 絶作이라’고 평함
10	挹白堂宴에서 五峯·月沙를 제치고 지은 崔昱의 絶作시	시는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며, 조잡하게 압운하고 억지로 차운하여 스스로 능하다고 여기는 세태를 기롱함
11	최립이 製述官으로서 明使 주지변을 접대할 때 지은 시에 얽힌 일화	적절한 詩語 선택의 중요성과 이를 알아보는 감식안이 필요하다
12	박연폭포에서의 鄭民秀의 시화 및 폭포를 소재로 한 車天輅·鄭順朋의 작품	車天輅·鄭順朋의 시를 ‘句의 豪拙, 意味의 有少’로 評함
13	문장으로 선조에게 총애 받고 중국에 까지 이름 날린 차천로에 대한 일화	文才를 아꼈던 선조와 중국에까지 알려진 차천로의 시를 통한 시대상
14	權譚이 白衣從事官 당시 때의 시화	險韻에도 應口輒對했던 권필의 詩才
15	權輅의 ‘松都懷古’ 시에 얽힌 일화	명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로써 대접받던 권협의 詩才
16	任叔英의 七百韻에 대한 李安訥의 答詩	七百韻은 以小敵大하고자하는 심리적 열등의식의 표출
17	李晬光·李敏求 父子의 시에 대한 世評	‘造詣則…不及於父’라는 世評에 例示를 들어 동의함

條次	內 容	論 旨
18	李明漢의 詩에 대한 李植의 直評	評詩에 대한 李植의 준엄한  자세
19	金地粹와 시승 太能과의 酬唱	唐詩를 추송했던 당시의 詩風
20	자신의 先親인 金緻의 시 2首 소개	李植같은 大家에게 찬사를 들을 정도의 작품임을 자랑함
21	선친 金緻의 시 1首와 1聯 소개	上同
22	자신의 外숙 睦大欽의 시 3首 소개	모두 清麗하고 唐詩의 운치가 있고 評함
23	蔡裕後가 墮水 뒤에 船上에서 읊은 卽興詩	한 시인의 난센스로, 시인들의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됨
24	權鞞의 古詩體에 뛰어남과 鄭斗卿의 시풍 및 歌行	권鞞의 古詩體와 정두경의 歌行을 들어 당시의 浮靡한 풍습을 지적함
25	鄭斗卿의 ‘登凌漢山城’, ‘清心樓’ 시와 일화	‘登凌漢山城’은 筆力壯健하며 ‘清心樓’는 고적  잠삼보다  우위라 평함
26	柳道三이 安邊 釋王寺에서 지은 시	시와 정신이 한데 모여져서 發한 詩語가 高요하면서 시원하다고 평함
27	姜栢年의 ‘金剛山道中’ 시와 이에 얽힌 이야기	世說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字眼이 되는 글자에 대한 견해를 피력함
28	洪柱世와 申最의 시 및 李植의 평	文才를 시기 받아 크게 떨치지 못한 것을 애석해 함
29	知己인 朴長遠의 文才早成과 月課詩에 관한 일화	奇童으로 불렸으며, 인조에게도 인정받은 일로써 詩才를 부각시킴
30	詩論과 當時 詩格	天機論的 인식에 입각한 시의 품격론 설과
31	장유가 才士之雄라고 한 洪錫箕	文章은커녕 才士도 거의 없는 시대를 한탄함
32	잘 지었다고 傳誦되는 申混의 戲弄詩	結句의 완곡한 맛이 적은데, 이는 具眼者라면 알 수 있다
33	남용익의 題畫詩, 그리고 李知白과의 일화	讀少賦多의 不可함을 들어 간접적으로 多讀의 필요성 지적
34	金錫胄의 작시대도와 次韻詩, 그리고 多讀에 대한 견해	不多讀에서 오는 製述의 한계성 지적

條次	內 容	論 旨
35	申儀華와 金錫胄의 수창시	申詩는 淸韻하며 金詩는 用意似雕하다고 평함
36	李沃·洪觀의 詩不如文에 대한 스승 李敏求의 評說	能文하다고 能詩한 것은 아니다.(詩有別才者)
37	洪萬宗의 ‘採蓮曲’과 ‘水鐘寺’ 시와 評論	盛唐의 시의 의경을 성취하였다 평하고, 多讀만으로 이르지 못하는 詩의 경지가 있다함.
38	趙宗著와 任墜의 聯句 및 短評	佳作이라고 말하지만 造語가 牽強한 부분이 있다
39	科賦科詩만 일삼고 古詩律에는 어두운 당시의 시풍	科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詩風을 개탄
40	世傳하는 시와 그에 대한 評	광대의 戲語 같다하며 철저히 배격함
41	名作으로 世傳하는 시와 그에 대한 評	비루한 俚語이며 이치에도 맞지 않다 하여 일축함
42	원님들이 신록사에서 시를 짓다가 망신당한 일화	억지로 시를 짓고 읊조리는 세태를 냉소함
43	자신이 龍湖亭榭에서 지은 시와 이에 얽힌 이야기	더 좋은 시가 많음을 自讚하며 시에도 遇不遇가 있다고 自評함
44	詩名이 나기 前·後에 따라 달라지는 詩評과 李植의 明鑑	시를 아는 자는 시로써 사람을 취하고 시를 모르는 사람은 명성으로써 시를 취한다
45	朴長遠의 金得臣·洪錫箕 시에 대해 評한 이야기	시인과 그들의 시에 대해 잘 알아야 適評할 수 있음을 강조.
46	자신과 唐人의 聯句가 韻格의 차이는 있으나 句法이 같았던 경우	시인들의 意思는 때론 우연히 일치 할 수 있다
47	唐詩人과 같았던 자기의 作詩 자세	用盡心力하지 않고 淺學으로 驚人句를 지으려 하는 당시 풍조를 지적함
48	역대 文章들과 자신의 多讀 歷數	자신의 魯鈍한 기질을 만회하려 다독에 주력했음을 술회

이상과 같이 『중남총지』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면서 드러난 몇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용상 시론詩論 중심이라기보다는 시詩에 얽힌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시에 관한 해석, 비평, 감상과 거기에 부수되는 제작 동기 및 일화, 기타 작가의 신변잡기에 이르기까지 시에 관련된 사건 중심으로 잡록雜錄되어 있다. 둘째 시화집을 찬撰함에 통상 當代人當代人的 작품은 실지 않았던 것에 비해 김득신은 선친(20·21조), 외숙(22조), 친구(25·29·31·34·37·45조), 자신(43·44·46·47·48) 등의 작

품을 실음으로써 결국 수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셋째 비평의 부분에 자기의 견해로 직접 비평하기보다는 주로 다른 사람인 허균·이식 등의 비평을 인용하여 논거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에 대한 의식은 주관이 명확하고 자신감으로 충만 되어 있어 냉철한 시평詩評을 가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는 여기에서 천기天機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시를 품평하는가<sup>18)</sup> 하면 묘오론妙悟論에 입각한 시의 감식안에 대해서 설파하기도<sup>19)</sup> 하였다. 또한 양기養氣에 의한 품격론에 대해서도 소견을 피력하기도 하였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종남총지』의 형성배경을 바탕으로 백곡의 비평의 실재를 논하겠다.

### III. 비평의 실제

창작創作과 비평批評은 불가분의 관계지만, 그러나 각기 다른 차원의 세계이다. 이에 대해 백곡 김득신은 일찍이 『소화시평小華詩評』 서문에서 ‘지시知詩의 어려움이 위시爲詩의 어려움보다 심하다’는 고인古人的 말<sup>20)</sup>을 들어 비평의 어려움을 말했다. 이는 시를 지을 때와는 달리 비평가적 감식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목은 시인이라고해서 쉽게 터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환언하면 “시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연후에야 올바른 감식안이 생긴다는 것이다. 김득신은 평생 많은 독서와 습작으로 시에 대해서 저절로 눈이 떠지면서 본색을 터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 만만한 비평세계를 전개하기도 한다. 이에, 『종남총지』에 나타난 백곡의 비평세계를 작품 지상주의적 비평관과 경험론적 비평관으로 양분兩分하여 논하겠다.

#### 1. 작품 지상주의적 비평관

김득신은 『종남총지』 첫 번째 조條에 어무적魚無迹과 이효칙李孝則 사이에 일어난 일화를 소개하면서 그 말미에 ‘말을 고르는 데는 여원에서 실수하고 선비를 고르는 데는 가난한데서 실수한다’<sup>21)</sup>는 옛사람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만 선부르게 판단하는 데서 일어났던 실수담失手談<sup>22)</sup>으로, 요지는 바로 시는 그 작자의 신분, 외모, 명정보다는 작

18) 拙稿 『柏谷 金得臣 研究』에서 천기란 “自然에서 얻어지는 神思의 發動”이라고 정의 내린 바 있다. 김득신은 시에 대한 자기의 소견을 피력하고자 천기론적 시의식에 입각해서 시를 품평했는데, 우선 自然에서 얻어지는 神思의 발동을 통해 포착되어져 [得於天機] 자연적 창조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自運造化之功] 詩를 最上으로 보고 있다.

19) 金得臣은 妙悟의 과정을 통해 시의 본질을 깨닫는 경지에 이르러서야 훌륭한 시인, 제대로 詩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갖게 된다는 嚴羽의 妙悟論의 감식안의 소유자였다.

20) <小華詩評序> 153쪽 “…知詩之難, 甚於爲詩之難…”. 이 말은 서거정의 『東人詩話』 上에서도 “作詩非難 而知詩爲尤難”이라고 언급되었듯이 詩學의 일반적 통념이었다.

21) “…古語云 相馬失之瘦, 相士失之貧, 此之謂也.”

22) 이런 類로는, 지저분한 용모의 용재 이행(2조), 나이가 어린 유생 우탁(6조), 의관이 남루했던 정민수(12조), 가난한 선비 권협(15조) 등의 시화가 있는데, 모두 외모가 볼품없거나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우선적으로 괘시를 당한 경우를 소개하고 있다.

품 위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세는 다른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내가 생각건대, 속인들은 시를 보는 눈도 없고 시를 듣는 귀도 없다. 오직 시대의 선후와 사람의 귀천으로 시격詩格이 경輕하다 중重하다 하니, 비록 이백과 두보가 다시 태어나 지위가 하류에 있다 손치면 또한 반드시 경輕하게 여겨 업신여길 것이다. 이런 세도가 개탄스럽다.<sup>23)</sup>(6조)

시를 아는 사람은 시로써 사람을 취하고 시를 알지 못하는 자는 명성으로써 시를 취한다.<sup>24)</sup>(44조)

윗 글들은 시에 대한 안목도 갖고 있지 못하면서 단지 시대의 선후와 사람의 귀천으로 시의 우열을 논하는 세태를 탄식하고 있다. 김득신은 시를 제대로 평가함에 있어서 작자의 인적 사항은 하등에 관계가 없으며 오직 작품 위주로만 평가해야 한다는 ‘작품 지상주의’를 피력하고 있다. 결국 시라고 하는 예술의 감상과 이해는 권력이나 부를 포함한 문학 외적인 자질이 아닌 순수한 예술적 척도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그의 비평 자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로써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작품을 자신 있게 소개하기에 이른다.

선객 이두춘은 무명의 선비이다. 그가 단양 골짜기에서 지은 시에 이런 것이 있다. …이것은 속세의 시어가 아니다.<sup>25)</sup> (3조)

나의 선친은 호가 남봉이다. 어려서부터 글공부를 하여 곧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를 아는 이가 드물다. 이제 선친의 시 몇 수를 싣는다. …택당은 일찍이 칭찬하기를 처완하여 월 만하다 했다.<sup>26)</sup>(20조)

라고 하였다.

이밖에도 자신의 아버지(21조)<sup>27)</sup>, 자기의 외숙(22조)<sup>28)</sup> 등 비록 시명詩名이 없는 사람들도 수작秀作이 있다 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와 외숙의 경우는 택당澤堂 이식李植 등 주위의 평을 덧붙여 혈육으로 인한 혐의를 피하려 한 듯하다.

이와는 반대로 유명한 사람의 작품으로 이미 세상에서 이름난 알려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다.

정철의 낙민루시에 이르길, … 세상에서 절창이라고 칭하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낙민루와 만세교가 얼마나 장성한 것인데 끝 구절의 말이 이처럼 거칠고 쇠잔한가 또 회고시 같은데 어찌 절창이

23) “…余謂，俗人無具眼，又無具耳，唯以時之先後，人之貴賤，輕重之，雖使李杜，再生，若沈下流，亦必有輕侮者，世道可慨也。”

24) “知詩者，以詩取人，不知詩者，以名取詩。”

25) “羽士李逗春，無名之士，而其丹陽峽中詩…非烟火食語。”

26) “余先人，號南峯，自少爲文詞，便自成家，而罕有知之者，今錄其數首 … 澤堂嘗稱，悽惋可誦。”

27) 金緻(1577~1625) : 조선 중기의 문신. 자는 사정(士精), 호는 남봉(南峰)·심곡(深谷). 선조 30년에 알성문과에 병과급제하여 실서(說書)를 시작으로 사가독서·사복시정·이조참의·동부승지·대사간·홍문관교리·부제학·병조참지에 올랐으나 독직사건으로 파면되었다. 인조반정뒤 벼슬길에 다시 올랐으나, 대북파로 몰려 유배당했다가 풀려나 동래부사·경상도관찰사를 지냈다. 저서로는 《남봉집》과 《심곡비결》이 전한다.

28) 睦長欽(1572~1641) : 조선 중기의 문신. 본관은 사천(泗川). 자는 우경(禹卿), 호는 고석(孤石)·다산(茶山)이다.

되겠는가...29)(7조)

‘낙민루樂民樓’는 정철이 함흥의 명승 낙민루에 올라가 바라본 경물과 감회를 표현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당시 절창絶唱으로 알려졌지만 김득신은 이런 세인世人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이 판단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는 유명한 시인의 것이라면 아무런 분석도 하지 않고 그저 호평好評만하는 당시의 풍조를 지적한 것이다. 요컨대, 무명의 시인이라고 해서 수작이 없을 수 없고 유명한 시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명작만을 짓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은 시를 심미적 안목에 의하여 감상하고 품평하고자 노력하는 비평가의 입장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이렇듯 김득신은 시평에 있어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어디까지나 작품 그 자체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작품 지상주의’를 주장하였고, 그 자신 또한 그 기준에 의해 시평을 전개하였으니, 성인의 말씀<sup>30)</sup>을 실천躬行實踐躬行한 학자의 자세가 작품의 비평세계에 여실히 드러나 있다.

## 2. 경험론적 비평관

김득신은 시란 매우 신비한 것으로 기묘한 조화의 산물이라고 이해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시평을 하기 위해서 평자評者是 작가作者가 문장을 짓는 과정에서, 특히 ‘작가의 마음이 쓰인 곳’[用意處]을 알아 그 곳을 궁구窮究해야만 그 작품에 담겨진 기묘하고 조화로움을 알아낼 수 있으며, 나아가 작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음을 설파하였다. 다음 5조의 내용은 이런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문장의 용의처에는 절로 기묘한 조화가 있으니 진실로 논하기가 쉽지 않다. 물상을 형용하고 풍경을 묘사하는데 이르러서는 풍운의 변태가 조석으로 무상하니 진실로 그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능히 명확히 알아내지 못한다. 이것은 성인이라야 성인을 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호음 정사룡의 ‘후대야좌시’ 한 련聯인 “산의 나무가 일제히 우수수 바람이 갑자기 일어나고, 강물 소리 별안간 거세지자 달만 덩그런히 떠 있다.”를 평하기를 “달만 덩그런히 떠 있다.[月孤懸]라는 이 세 자는 ‘강물 소리가 별안간 거세지자’란 말과 동떨어진 소리로 아래위가 맞지 않는다.” 했다.

허균이 편찬한 『국조시산』 가운데에 이 시를 뽑아 넣고 평하기를 “이 노인의 이 련구聯句는 마땅히 이 책에서 압권이다.”라 했다. 허균은 시를 알아보는 눈이 가장 밝다고 세상에 이름이 났으니, 그렇다면 의당 깊이 해득한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수광이 이런 폄하의 논평이 있는 것은 미처 자세히 궁구하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닐까? 내가 일찍이 청풍을 지나다가 황강역에서 묵은 적이 있었다. 밤중에 여울의 물소리가 매우 요란하여 문을 열고 보니, 지는 달만 덩그렇게 걸려 있었다. 그래서 호음의 “강물 소리 별안간 거세지자 달만 덩그런히 떠 있다.”란 句를 떠올리면서 한번 읊어 보고 세 번을 탄복했다. 짐짓 옛 사람의 풍경을 묘사한 것이 꺾진하여 그 시의 가치가 실경實景을 대하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sup>31)</sup>

29) “松江鄭澈，樂民樓詩曰 … 世稱絶唱，而余意，樂民樓萬歲橋，何等壯盛，而末句，語澁低殘，且似懷古之咏，何以爲絶唱耶…”

30) “子曰 衆好之必察焉 衆惡之必察焉”『明心寶鑑』 「正己篇」

31) “文章用意處，自有奇妙造化，誠未易論也，至其狀物寫景之語則，如風雲變態，朝暮無常，苟非自到其境，

윗 글에서 김득신은 호음 정사룡이 지은 시구詩句를 두고 이광수와 허균의 서로 엇갈린 평가 사이에서 선부른 판정을 유보한다. 그러다가 훗날 자신이 직접 시구의 내용과 동일한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야 허균의 평가가 정확했음을 알게 되고, 시의 진가眞價는 실제 풍경을 대하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결과 김득신은 문장 속에서 작자가 ‘특히 마음이 쓰인 곳[用意處]’은 절로 기묘하고 조화로움이 있기 때문에 쉽게 논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물상을 형용하고 경치를 묘사하는 데에 있어서 그 현상의 무상無常함을 아는 경지에 오른 자만이 이를 알 수 있다고 단정 짓는다.

결국 작자의 용의처를 알아 신중하게 접근하여 궁리하는 자세를 갖지 못한 채, 다만 자구字句의 해석에 얽매인 이수광의 시평의 한계성을 지적한 것이다. 요약하면, 작품에는 반드시 작자의 용의처가 있으며, 평자評者는 그 용의처를 궁구하여 알아내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신중하면서도 경험론적인 그의 비평관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사실주의에 입각한 경험론적 비평관은 다음 시평에서도 볼 수 있다.

“해 저문 강의 흥취를,  
고개 돌려 백구에게 물어보니.  
붉은 여뀌 달빛에,  
어부 첫대소리의 가을이라 대답하네.”

누구의 작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진실로 광대의 말이니 비루한 속어로 가소롭다. 백구가 어찌 사람에게 대답하는 이치가 있겠는가? 세상에는 시를 아는 이가 드물어서 모두들 이름난 작품이라 칭찬하면서 혹은 내가 지었다고 여기니, 배를 잡고 웃을 뿐이다.<sup>32)</sup> (41조)

윗 글에서 김득신의 논평은 단호하다. 보이는 대상을 그대로 직경적直景的이고 사실적으로 그려냄으로써 뽀진眞眞<sup>33)</sup>한 가운데 저절로 기묘한 조화가 생긴다고 보았던 그에게, 단지佳作이나 경인구驚人句를 만들기 위해 진실한 표현과 사실적 묘사가 결여된 작품은 일고一顧의 가치도 없음을 말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얕은 학식으로 덮어놓고 시를 지어서 경인어驚人語를 만들어 내려 하니 역시 영성하지 않겠는가.<sup>34)</sup>”라고 한 말과 상통한다. 결국 김득신은 사실주의에 입각한 경험주의를 실천한 비평가였다고 할 수 있다.

#### IV. 나오는 말

이상과 같이 김득신의 『중남총지終南叢志』에 나타난 비평관을 논하였다. 논지의 전개

不能明悟，是猶聖人，能知聖人也，李芝峯類說，評鄭湖陰 後臺夜坐詩一聯，山木俱鳴風乍起，江聲忽厲月孤懸，以月孤懸三字，與江聲忽厲，不相屬云，許筠所撰國朝詩刪中，選入此詩，而評之曰，此老此聯，當壓此卷，許筠，以藻鑑名世，則宜有所深解，芝峯之有此貶論者，豈未嘗細究而然耶，余嘗過清風，抵宿黃江驛，夜半，聞灘聲甚駛，開戶視之，落月孤懸矣，因憶湖陰，江聲忽厲月孤懸之句，一詠三歎，始覺古人，寫景逼眞，其詩價對景益高也。”

32) “落日清江興，回頭問白鷗，答云紅蓼月，漁笛數聲秋，不知誰作，而眞俳優之語，鄙俚可笑，白鷗，豈有與人，酬答之理耶，世罕知詩者，皆稱名作，而或以爲余作，祇堪捧腹。”

33) 逼眞：생활의 본래적 모습에 입각하여 현실을 진실되게 반영하고 이를 통해 현실의 본질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것. 『고전비평연구1』, 국어국문학회 편, (대학사, 1997.5)

34) 47條, “…今人, 以淺學, 率爾成章, 便欲作驚人語, 不亦疎哉.”

과정을 정리하고 남는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을 삼겠다. 먼저 서론에서 본 논문의 문제제기 및 논지 전개 과정을 밝혀 두었고,

① 『종남총지』 형성배경에서 17세기 문풍은 문학비평 쪽에서 정통 한문학을 고수하고자 하는 문사들은 재도載道·관도론貫道論을 답습할 뿐 발전적이거나 새로운 비평의식을 제시하지 못한 반면에, 개량주의자들은 심각한 이론을 제기하고 있음을 보았다. 특히, 이 시기에는 시 비평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그 결과가 다양한 시화집의 형태로 나타난 점은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② 『종남총지』의 작품내용에서는 본 시화집이 48조의 시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조선 중기 문인과 김득신 당시 주위 인물에 대한 시와 시작詩作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소개, 작품에 대한 단평短評도 가하고, 시에 대한 이해와 작시의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③ 『종남총지』에 나타난 백곡의 비평세계의 실제에서는 작품지상주의적 비평관·경험론적 비평관으로 양분하여 어떠한 선입견도 갖지 말고 어디까지나 작품 그 자체만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작품 지상주의’에서 성인의 말씀을 실천궁행한 학자의 자세가 작품의 비평세계에 여실히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가작이나 경인구를 만들기 위해 진실에 어긋나면서까지 꾸며대는 작품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말하는 김득신이 사실주의에 입각한 경험주의를 실천한 비평가였음을 밝혀냈다.

이렇게 『종남총지』에서 김득신은 시의 예술적 가치에 큰 비중을 두어 경박한 이해와 해석을 지양하려는 엄정한 태도를 중시하였고, 작품의 올바른 감상과 품평이라는 실제비평에 주력하는 17세기 후기 시화군詩話群의 선두로서 그의 시화사적 위상을 자리매김할 수 있다.

지면상 본 논지에서 다루지 못한 김득신의 시의식에서 발견되는 묘오론妙悟論과 양기론養氣論은 비평관에 접목시켜 천작되어야 할 것을 후고에 미루어둔다.